

세계여성의 해—여성과 전문직

요

약

—교육, 경제, 정치, 문화적 견지—



李 璟 滢

<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哲博>

여성과 專門職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정, 사회, 여성 및 세계평화에 관련시켜, 敎育, 경제, 정치 그리고 文化的見地에서 各各 말씀해 주셨습니다.

女性の 社會進出을 단순히 量的증가만으로는 그 眞面目을 평가하기 어렵고, 전체 여성활동인력에 대한 직능별 구성비, 특히 전문직 구성비가, 그 사회에 있어서의 女性の 社會참여에 대한 靑果가 된다는 것과 아울러 社會진출 女性人力의 質的向上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지의 토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敎育적 견지에서,

정 회경 박사께서 強調하신 것은, 敎育을 통한 직업의식의 高揚으로서 社會참여에 相關된 健全한 역할모형이 成長發達過程에서 부터 주어져야 하고, 계속 성장과 더불어 직업의식을 가지게 하여 人間能力을 기본으로한 社會기여 인식, 男女차별문제에 對한 극복으로서 女性の 社會참여에 相關한 自己實現을 기하기 위하여는 가정, 학교, 그리고 社會敎育이 未來志向의이면서 상호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女性の 社會참여에 있어 敎育의 重要性과 방향을 지적해 주

셨습니다.

박 혜경 박사는,

경제발전의 목표달성을 위해 女性역할의 절대적 필요성을 경제적 측면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必要한 女性역할은 전문인에 국한한 것이 아닌, 女性の 全般적인 것으로서 노동력 제공, 소비자 측에서의 生産力向上 촉진, 그리고 家計의 合理的 운영으로서 자본축적에 각각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홍 숙자 박사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女性은 社會참여의 眞意를 파악하고 女性地位 向上과 男女平等을 이루기 위해서는 政治的 각성이 先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전통사회에서의 女性역할에서 탈피하고, 男女 共히 政治能力을 行使하고, 政策決定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업여성의 강한 組織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政治的 側面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연속 선생께서는,

한국여성 전문인의 시초가 사회적 수용에서 보다 個人的 次元에서 전통적 女性역할을 中心으로 발전해 나왔기 때문에 女性專門인들의 共同의식이 不足하고 극히 소극적 참여일관으로 내려왔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성 專門인들의 “사회 속의 자기”를 볼 줄 모르는 극히 미시적 태도는 보다 효과적인 社會文化에의 기여를 늦추어 오고 있다고 꼬집으셨습니다. 特定 專門職에만 너무 국한되지 말고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모든 여성전문인들이 共同體의식을 갖고 사회와 文化발전에 앞찬 기여를 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과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함과 同時에 女性專門職의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그리고 당한 社會文化 참여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좋은 제언까지 부언해 주셨습니다.

좌장을 맡은 사람으로서, 감히 본 Panel에서 토의된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다음 세

가지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우리 人間社會를 보다 살기좋은 것으로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男女 다같이 참여하는 共同노력이 필수적일 것이며 따라서 男女 다같이 社會참여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견제될 것입니다.

2) 社會進出에 있어 質量的면이 다같이 고려되어야만 그 眞價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女性의 社會進出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量的증가는 눈부시게 보이나 質的面이라고 볼 수 있는 전문직의 여성활동인력에 대한 구성비가 극히 낮은 현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핵심적인 전문인들의 적극적 태도와 참여, 그리고 女性共同의식 체 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이겠습니다.

3) 社會참여에 있어 男女 平等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女性은 自身들의 잠재능력 개발이 시급하며, 人類共存을 위해서 男女의 노력이 다같이 필요하고 그 必要가 이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진정한 뜻에서의 여성의 社會참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으므로 그때까지 계속해서 가정, 사회, 여성, 세계평화를 위해서 여성의 行動반경을 넓혀나가야 되겠습니다.

▶ 영어강좌 안내 ◀

본회에서는 취업 및 이민으로 해외에 나가고자 계획중에있는 회원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어 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RN반은 보다 짜임새 있고 충실한 내용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RN 시험에서 상당수의 문제가 출제됐다는 교제가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내용이 좋아 이를 추가로 보충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병원영어회화반도 마련하였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RN 반

일 시 : 매월초~말까지 (매주 월-금요일)

시 간 : 오후 5~8시

장 소 : 본회 강의실

교 재 : Nursing Examination.

월별강의내용 : 1975년 12, 1월—정신과간호학
2, 3월—내외과간호학

병원영어회화반

일 시 : 매월초~말까지 (매주 화~목요일)

시 간 : 화, 목—오후 5~7시, 수—오후 5~8시

장 소 : 본회 강의실

교 재 : English Conversation Through
Nursing Practice (이송희 저)